

“친환경,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불교환경워크숍... 실천방안 쏟아져

“쓰레기를 줄이고, 공양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

11월 중 공식발표를 앞두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의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불교환경워크숍이 조계종 환경위원회 주최로 10월 28-29일 김포에서 열렸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지음 스님, 조계종 전 기획실장 현고 스님을 비롯한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의제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실천점검 시스템 도입을=참석자들은 불교환경의제21의 전체 내용을 모두 실천하기 어려운 만큼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선정해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연구실장 역시 ‘불교환경의제21 실천에 대한 제안’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하며 각 주제들의 분담을 촉구했



불교환경 워크숍에서 현고 스님(왼쪽에서 두번째)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다. 정 실장은 2004년 본말사 주지연수에서 각 사찰이 제출한 △경내지에 나무 심기 △합성세제 쓰지 않기 △쓰레기 줄이기 등의 예를 열거하며 “전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것에 기본정신이 있는 만큼 쉬운 일들부터 각 주제가 서로 협력해 나갈 때 의제는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조별토론에서

△환경예산 1% 편성 △교구본사 불사위원회 설치 △월 1회 이상 대체종 발우공양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종단차원에서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점검·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음 스님은 “공식 발표 이전에 반

드시 실천 가능한 의제를 선별하고 점검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 조승현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행환경 지키기가 조직이 기우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사회에 각인시키려면 불교계 스스로 수행환경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구본사 참여를 여전히 저조=그러나 불교환경의제21 실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구본사 담당자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했다. 전체 24개 교구본사 중 7개 교구본사만이 참석한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던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지금까지 3차례 환경워크숍을 했지만 스님들이 이렇게 적게 온 것은 처음”이라며 교구본사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은 3차 불교환경워크숍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직접 불교환경의제21을 선포할 예정이다.

김포=유철주 기자



지음 스님이 10월28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환경특강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친=강유신 기자

‘천성산지킴이’ 梨大서 환경특강

“신문을 통해 수십일간의 단식을 세 번이나 한 지독한 비구니, 혼자서 몇 초원씩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막는 비구니로 알려졌을 텐데 실제 모습은 어떤가요?” “웃음...”

‘천성산지킴이’ 지음 스님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제4차 단식에 돌입한 다음 날인 10월 28일, 서울 이화여대를 방문해 ‘천성산 살리기’를 주제로 한 환경 강연을 했다.

지음 스님은 “불교에서는 만물이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생각이지요. 그런데 스님들이 선행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세상일은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빠지기 쉽지요.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 별로 단식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같네요”라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지음 스님은 이어 “막상 사회에 나오고 보니 너무 잘못된 게 많았어요.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건만 괜찮다’고 하는 무관심, ‘실악산도 뿔했는데 천성산 같이 작은 산을 뿔는데 왜 반대냐’는 비웃음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깊이 참회했다”고

말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스님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100일 간 혼자서 천성산 공사현장을 지키기 때였다고 회상했다. “나는 공사의 진행을 막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할 만큼 위급한 순간에 처했다. 싸움도 잘하고 복소리도 큰

비구니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듯 떠나버려 괴로웠다”고 말했다.

“비난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은 지음 스님은 “사실 나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나와 싸우던 현장 노동자였던 것 같다”며 “천성산 살리기는 우리 삶을 지탱하기 위해 희생되는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일깨우려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강유신 기자

지음스님 4차 단식 돌입

환경부 장관 고발

지음 스님이 10월 27일 또다시 4차 단식에 돌입했다. 8월 26일 58일간의 단식을 끝낸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지음 스님은 “환경부가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부산고법도 법이 천성산 환경에 대한 자체 감정을 취소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단식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지음 스님과 동종농 시민행동은 10월 27일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법원의 모든 약

속을 깬다면 다시 원점이 되는 일”이라며 광복회 환경부 장관을 “환경영향평가 위원회의와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부산고법에 고발했다. 동종농소속 광주전남 시민행동도 27일 광 장관을 고발한데 이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 고소·고발이 동시에 접수됐다.

동종농 시민행동 부산 공동대표인 김석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과 함께 부산고법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음 스님은 곧바로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화운사 송전탑 문제 타결

한전, 절과 협의해 건설키로

2년여를 끌어왔던 용인 화운사주지 해안 인근 송전탑 건설 문제가 공사업체가 협의 이후 원만하게 공사를 한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타결점을 찾게 됐다.

‘화운사 고압송전철폐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위원장 성호·이하 비대위)’는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10월 19일 ‘화운사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찰가시권 밖으로 변경설치)에 대해 화운사와 원만하게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임을 회신한다’는 공문을 보내오며 따라 송전탑 건설 문제는 해결점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가

지난 2002년 10월 26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신용인-동백송전선로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후 송전탑 건립이 추진된 지 2년이 만이다.

화운사 송전탑 건립 문제는 2002년 12월 한국전력공사가 “사찰에서 보이지 않도록 변경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가, 2003년 해 12월 16일 “송전탑 주변 토지소유주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로 위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다시 논란을 빚었다.

강유신 기자

韓中 청소년 지도자 대회

10일까지 서울 경주 부산

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원태)가 부산 내원청소년단(이사장 정연)과 함께 한·중 청소년 지도자 교류대회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경주 부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중국 청소년 단체 지도자 100여 명이 초청되는 이번 교류대회는 산업시설, 토론회, 레저문화체험, 한국사찰체험, 한국가정방문, 인연 및 서울 투어 등의 주제로 9박 10일간 진행된다.

한·중 청소년 지도자들은 체험기간 동안 농심 견학을 시작으로 에버랜드, 해인사 불국사 탐방, 국제영화상회와 같은 부차용을 빚고 있다”면서 “중앙총회는 3년 분립의 철저한 정착을 위해 총회의원, 교구본사 주지 등의 결집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단자정센터에 따르면, 호계원, 법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종단 내 행정이나 입법기관의 직책을 겸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 경우가 적지 않다.

강유신 기자

김지영 기자

불교-가톨릭인 교환 홈스테이

불교와 가톨릭의 종교인들이 교환 홈스테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와 가톨릭 평신도들의 모임인 평신도사도지침회(회장 손병두)는 10월 27일 서울 시내에서 모임을 갖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종교간 상생(相生)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손안식 부회장, 최연 사무총장 등과

상호 이해·상생 토대 마련 성지순례·대화모임 추진

가톨릭측의 손병두 회장, 오덕주 부회장, 최홍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중앙신도회는 가톨릭측에 ‘이웃종교 가족교환 홈스테이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에 따르면 두 종교는 2005년부터 분기별로 1박 2일 동안 5-10개 가족이 참여하는 홈스테이

이를 실시해 종교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또 두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성지순례 행사와 ‘대화모임’을 지속적으로 열며 종교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풀어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철주 기자

해인사에 큰 지혜를 주십시오

해인사의 종풍(宗風)진작과 한국불교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해인사는 한국불교 종합수도원(총림)으로 지정되어 사시사철 250여명의 스님들이 수행정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수행도량이며, 또한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法寶)총림입니다. 조계종 출범이후에는 스님들의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선종(禪宗)의 가풍을 진작함으로써 모든 수좌, 선객들의 정신적 교양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 받아 해인사가 교단과 한국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서 더욱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인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고견을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기간: 불기 2548(2004)년 10월 5일 ~ 12월 말일까지
- ◆의견내용: 1. 해인총림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2. 해인사 교구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총림 및 교구발전에 필요한 수행·교육·포교·문화 사회분야 및 각종불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인사에 도움되는 각종 의견
- ◆의견접수: 우편접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편집실 055)934-3111 팩스: 055-934-3112 / Email: haein3111@hanmail.net / 홈페이지: haeinsa.or.kr

불기2548(2004)년 10월 7일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 위원회

- 중 명: 방장 법전 대종사
- 고 문: 도전스님, 지관스님, 정원스님, 승원스님, 원흥스님
- 지도위원: 종성스님, 도선스님, 중현스님, 원각스님, 효광스님, 관후스님
- 상임공동위원장: 원택스님 ● 공동위원장: 종림스님, 여연스님, 향적스님, 혜능스님, 종묵스님, 도각스님, 선각스님
- 실무위원장: 능도스님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귀의 삼보 하옵고 법보총림 해인사에서 현 해인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고하고, 해인총림의 설립취지를 구현, 그 나아가 방향을 모색하고자 사부대중을 모시고 4차에 걸쳐 아래와 같은 주제로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인총림과 교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많은 사부대중이 동참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해인사의 한국불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1차 토론회
 - ① 주 제: 해인사에 바란다.
 - ② 발표자: 일민스님, 법등스님, 종림스님, 반야스님, 원규스님, 해원스님
 - ③ 일시·장소: 2004년 11월 7일 오후 1시, 보경당
 - ◆2차 토론회
 - ① 주 제: 해인사 수행 풍토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 ② 일시·장소: 2004년 11월 28일 오후 1시, 보경당
 - ◆3차 토론회
 - ① 주 제: 사회·문화·포교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 ② 일시·장소: 2004년 12월 12일 오후 1시, 보경당
 - ◆4차 토론회
 - ① 주 제: 불사(동판·복지·문화재보존·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 ② 일시·장소: 2004년 12월 26일 오후 2시, 보경당
- ※ 매 토론회 발표자 의견 개진 후 참석대중 누구나 10분 이내 자유발언 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48년 10월 26일

해인총림 및 교구 발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원택 함자